

순천·여수의 밤 수놓는 클래식 별들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

8월30일~9월2일 순천만정원 등
조수미 개막공연·금난새 무대
이탈리아 이무지치 토크콘서트

■여수음악제 8월30일~9월2일

‘평창올림픽찬가’ 황수미
KBS교향악단과 협연



실내악단 이무지치



소프라노 조수미



소프라노 황수미

조수미, 이무지치, 야노슈카 앙상블, 만하임 체임버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무대가 순천과 여수에서 펼쳐진다. '2018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30일 프리마돈나 조수미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60년 전통의 이탈리아 실내악단 이무지치와 마에스트로 금난새, 첼리스트 송영훈 등이 무대에 오른다. 트럼페티스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와 파페라 그룹 '컨템포디포'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름다운 무대를 꾸민다.

'제2회 여수음악제'도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GS칼텍스 예술마루, 여수명소 및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4일 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고, 여수상공회의소와 KBS교향악단이 공동 주관한다. 8월 30일 개막공연은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열리며 KBS교향악단과 소프라노 황수미와 테너 국윤중이 무대를 꾸민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찬가를 부른 황 씨는 서울대 음대, 독일 뮌헨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했다. 그는

소프-차이콥스키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에서 2014년 우승을 거머쥐며 주목을 받았다. 현재 독일 본 극장(Theater Bonn)에서 솔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둘째날인 8월 31일에는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야노슈카 앙상블이 라흐마니노프의 '사랑의 노래',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 파가니니의 '파가니노스카',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등의 곡을 선보인다. 같은 날 여수 바스프와 여수시청에서는 KBS교향악단의 무대가 열린다. 9월 1일에는 만하임체임버와 앙상블 여

수가 슈타미츠의 '신포니아 D장조 D21',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베히의 '교향곡 3번 6단조' 등의 곡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GS칼텍스 사택 등에서는 아카펠라 DIA와 KBS교향악단, 팡팡싱어 '그란데 보체'가 무대를 꾸민다. 폐막공연은 KBS교향악단과 여수광양시립합창단의 무대로 마무리된다.

한편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제1회 여수음악제는 3일간 3000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의 061-641-0040.

이밖에 '2018 여수국제음악제'가 오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여수 예술마루에서 열린다.

23일 개막공연으로는 '오프닝콘서트: 감정과 열정'이 열리며 25일 '잼버 뮤직 콘서트: 번스타인을 위한 작은 오마주', 26일 '앙상블 콘서트' 순으로 진행된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소진, 웨인 린, 크리스텔 리, 비올리스트 앤드류 링, 이신규, 첼리스트 조슈아 로만, 김민지, 피아니스트 임효선, 데이비드 핑, 임성운, 백승훈 등이 출연한다. 문의 010-8951-524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읽기



김선철 작곡가

얼마 전 앙상블 디토의 연주회가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광주가 예향이란 단어가 무색하게 불만만 공연이 별로 없던 터라 기대를 가지고 공연장을 찾았다. 이날 연주자들은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만약 연주회장이 다목적 공연장인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이 아닌, 클래식 콘서트 전용 홀이었다면 어땠을까? 앙상블 디토 단원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났지만, 섬세함을 요구하는 악기와 악기의 앙상블에서 연주들이 연주자들의 표현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체적인 홀의 울림이 적어 청중들에게 앙상블의 효과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니 음악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언젠가 헬싱키의 콘서트홀 관련 기

카네기홀이나 보스톤 심포니홀은 1.6초, 오사카심포니홀은 2.0초다.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이 소극장이지만 1.5초 정도 된다고 한다.

세 번째는 청중이 연주 홀의 어느 위치에서 감상하든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예를 들면 좌석에 따라 청중에게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중앙 로얄석의 음향이 가장 좋지 않았

콘서트홀에 대한 단상(斷想)

사를 읽은 적이 있다. 시벨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 알토가 건축한 '핀란드아울' 바로 옆에 '뮤직센터'라는 새로운 콘서트전용 홀을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인구 60만의 도시에서 왜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콘서트홀을 건축했을까?

바로 음향 문제 때문이었다. 핀란드아울은 천장이 알바 알토의 디자인 패턴 때문에 잔향 시간이 부족해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한다. 문제는 천장 보수 공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알바 알토가 생존해 있지 않아 허락을 받을 수 없고, 건축물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어

바로 옆에 최고의 음향을 갖춘 콘서트홀을 건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 이상적인 연주홀은 어떤 곳일까. 첫 번째로 울림이 풍부해야 한다. 울림이 클수록 박력이 있고 잔향시간이 길더라도 잔향감이 커지며 잘 들리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베히린 챔버오케스트라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전문 콘서트홀이 아니니 울림이 적고 잔향감이 전혀 없어 소리가 청중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절한 잔향시간이다. 음향학자들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기에 가장 적당한 잔향시간이 2초 전-후라고 하는데, 비엔나 무직페어라인홀의 잔향시간은 2초,

고, 교향악단 연주는 2초에서 들었을 때 가장 좋았다. 이는 가변형 음향판을 사용하는 다목적 연주홀이 가지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향악단 연주에서 뒤쪽에 위치한 타악기나 금관악기 소리가 비교적 잘 들리는데 비해 앞쪽에 위치한 현악기와 협연자 소리가 약하게 들려 전체적인 어울림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는 포르테(큰 음) 뿐만 아니라 피아노(작은 음)도 섬세하게 잘 들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앙상블 연주하는 악기와 악기의 대비를 통한 섬세한 표현이 중요하고 다이내믹의 변화가 전달되어야만 청중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이상적인 음악 감상을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서트 전용홀이 꼭 필요하다. 통영국제음악당에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연주회가 줄을 잇고, 부산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콘서트 전용홀을 건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수도 광주에도 하루 빨리 콘서트 전용홀이 생겨 훌륭한 연주를 충분한 감동과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하드웨어(공연장)가 좋아야 다양한 소프트웨어(연주자 및 작품)가 빛을 발할 수 있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 병폐 지적...문학도의 '자기 반성'

에세이집 '김인환 과학과 문학'

"1980년 5월 18일 새벽에 군인들이 고려대학교 기숙사를 세 겹으로 에워쌌다. 학생들이 회의실에 모여 시위할 계획을 의논하며 흠뻑 땀 흘려 지어 하지 않았다. 그만 자라고 나는 전원을 껐다. 불이 꺼지고 얼마 안 되어 군인들이 들어왔다. 군인들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518명의 학생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혼자서 군인들과 상대하며 지새운 그 막막한 밤을 겪은 이후로 나는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문학적 사고에 대하여 반성하게 되었고 자의적

이 고 현학적인 문학 비평들에 실망할 때마다 통계학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다."(본문 중에서)

대체로 문학 평론은 텍스트에 집중해 필자의 문학적 견해를 담아내는 게 보편적이다. 다분히 주관적이고 현학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 허학(虛學)에서 벗어나 실학(實學)적인 인문학 길을 제시한 책이 눈에 띄는 이유다. 문학평론을 넘어 문화와 학문의 여러

영역을 아울러 통찰의 힘을 보여준 김인환 고려대 명예교수가 새 에세이 모음집 '김인환 과학과 문학' (수유산방·사신)을 펴냈다. 총 8편의 에세이와 1편의 영문 에세이는 과학과 수학, 문화와 예술을 오가며 세계의 폭넓은 문제를 건드린다. 책은 "문학도의 자기 반성"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즉 "객관성과 엄밀성은 놓친 자의적이고 현학적인 문학비평"이 "지적 사기"라는 냉정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한국 대학 복구론"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저자는 학문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우리 대학 교육에 대한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한다.

김 교수는 한국 교육의 병폐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수행되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은 최소한의 바탕 관념으로 한정하고 모든 작업을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하게 하는 과학과 예술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저자의 지적 사유는 학문 연구와 근대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영화와 인터넷 게임, 건축과 시, 정신분석학과 민주주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그 핵심에는 "실체는 무한하고 개념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문학과 과학이 서로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놓여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올여름 당신의 여행은?
'나만의 방법' 찾으면 더 행복해지는 여행
무더위엔 역시 '복캉스' 청춘들의 여행법

문화 여행 제주도 개성있는 독립책방들 이제 '책방 올레'다

문양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① '시인의 마을' 질마재에서 만난 서정주 시인

여행이 만난 이사람 광주시립극단 2대 예술감독 나상만 황금사자기 우승의 주역 광주일보 김창평

여행의 짜릿함, 문화의 즐거움 모두 A 강진 康津 가우도 질트랙 타고 자연 만끽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⑤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미국을, 그리고 세계를 점령했나?

전시 리뷰 광주시립미술관 2018 민중·인권·평화 <세계 민중 평화>전

에향 초대석
나남출판·수목원 회장 조상호
"책 만들고 나무 심는 마음 똑같아요"

문화 피플
삶과 예술의 감회담아 15년 만에 부부전 '동행' 가진 화가 최영호·조각가 손연자 부부

노중훈의 꿈의 여행 ③ 티 없이 맑은 자연 스위스 루체른 & 루가노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④ 코미디의 두 대가 버스터 키튼 vs. 찰리 채플린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⑥ 독특한 컨셉으로 사랑받는 도쿄 모리오카 서점

ACC 시네마테크에서 만난 미디어아티스트 박찬경 영화감독 박찬욱 형제